

영국인의 정체성과 의사 표현 방식*

박우룡**

차 례

- I. 머리말
- II. 영국적 정체성의 형성
 - 1. 통합적 정체성의 추구
 - 2. 잉글랜드 정체성의 기초
- III. 영국적 정체성의 문화적 표현
 - 1. 개인주의
 - 2. 보수성
 - 3. 계급의식
 - 4. 공공의식과 아마추어 정신
 - 5. 자연 사랑
- IV. 영국적 정체성의 언어적 표현
 - 1. 언어의 특징
 - 2. 직장에서의 의사 표현
 - 3. 거래 방식
- V. 맺음말

I. 머리말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말할 때, 'Britishness'라고 해야할지 'Englishness'라고 해야할지를 구별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영국인의 국민성 혹은 정체성을 말할 때 *Britishness* 혹은 *British National Identity*로 표현된다. 이러한 표현은 영국이 동질적인 사회를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할 때 가능하다. 그러나 영국의 역사적 성립과정과 수많은 이민의 존재를 고려

* 본 논문은 2001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음(KRF-2001-005-B00010).

**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학과 겸임교수

한다면 영국을 통일된 정체성을 가진 나라로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 영국은 정치적으로 수세기 동안 잉글랜드의 주도로 웨일스(1536), 스코틀랜드(1707), 북아일랜드(1801)의 순으로 합병이 이루어져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잉글랜드의 제도와 문화가 영국인의 생활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각 지역들은 잉글랜드의 문화에 점차 동화되어 독자성을 거의 상실하였다. 그래서 영국의 정체성을 말할 때 잉글랜드의 정체성(*Englishness*)을 말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이 많다. 실제로 20세기 외국인들에게 고정관념이 된 영국적 특성과 영국인의 이미지는 대부분 잉글랜드에서 유래한 것이다.¹⁾

영국인은 가는 세로줄 무늬의 정장을 입거나 비가 오는 날에 바바리 방수 코트를 입는다. 그는 중절모를 쓰고, 등나무 손잡이가 달린 돌돌 말은 검정 우산을 들고, 왼쪽 거드랑이에 연분홍색 신문을 찢어 놓고 다닌다. 그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가고 점심으로 요크셔 푸딩을 곁들인 로스트 비프를 먹는다. 그는 원칙에 철저한 사람으로, 약자를 위해 페어 플레이를 강조하고, 어린아이나 여우, 조류(鳥類)보다는 말, 고양이나 개에게 더 애정을 쏟는다. 그는 아마도 이튼(Eton)이나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공부했을 것이고, 애스콧(Ascot)²⁾, 워블던, 트윙커넘(Twickenham)³⁾, 로즈(Lord's)⁴⁾와 Wentworth⁵⁾에서 자주 운동 경기 관람을 즐긴다. 그는 군주제, 대영제국, 보수당을 신봉한다. 그가 자신의 사교클럽(여성 금지)에 있지 않을 때는 정원사들이나 수렵구(區) 관리인들과 함께 펠에 앉아서 따뜻한 맥주를 훌쩍이고 있을 것이다. 또 종종 교구 목사와 차를 마시며 국교회, 농장경영, 밀렵(密獵), 고장의 축제, 근위 사단에서 복무했던 시절에 관해 이런저런 대화를 나눈다.

1) R. Lewis, *When Cultures Collide: Managing successfully across cultures*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1998), pp. 172-173.

2) 영국 버크셔(Berkshire)에 있는 유명한 경마장으로 6월 셋째 주에 경마가 행해짐.

3) 런던 남서부의 리치먼드 어폰 템스 지역에 위치한 럭비경기장으로 비공식적으로는 'Twickers'로 알려져 있으며 5개국 대항 럭비 경기와 그 밖의 럭비연맹이 주최하는 경기들이 열리는 곳이다.

4) Lord's Cricket Ground의 약칭으로 북부 런던의 세인트 존스 우드(St John's Wood)에 위치한 유명한 크리켓 경기장이다. 경기장 이름은 1814년 이 경기장을 세운 토마스 로드(Thomas Lord)에서 유래했다.

5) 남부 잉글랜드 서리(Surrey) 주에 있는 유명한 골프 코스로 세계적인 경기(World Match Championship)를 포함해서 수많은 중요한 경기가 열리는 곳이다.

물론 이런 영국인의 모습은 현대에는 상당 부분이 기억에서 사라진 것들이다. 또 영국인 가운데 켈트족과 북부와 중부의 잉글랜드인은 이러한 이미지와는 거리가 멀다. 이들은 중부와 북부 잉글랜드 인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의 마음 속에 고정되어있는 영국인의 이미지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다. 이들은 그러한 이미지와 흡사한 영국인이 존재하지만 그들은 남동부의 일부 상류층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아직도 잉글랜드를 제외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는 독자적인 관습, 제도, 가치관, 언어가 있다. 또 많은 사람들은 20세기에 이민이 급속하게 늘면서 영국은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고정관념은 더 이상 보편적인 영국인의 모습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물론 남부의 잉글랜드인들도 이러한 지적에 상당부분 공감한다. 그들은 영국은 다양한 민족과 인종들이 함께 살고 있고, 특히 거의 천만 명에 달하는 켈트족 출신들이 지난 수세기 동안 한 국가를 이루고 살아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이들 비잉글랜드인들은 잉글랜드의 지배권을 상기하게 만드는 잉글랜드 상류층의 전통적 사고방식과 태도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⁶⁾ 그래서 잉글랜드인들은 가능하면 잉글랜드 풍이 느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British*가 들어가는 표현들(*British Commonwealth*, *British navy*, *British trade*)과 자신들을 *Britons*로 부르는 것을 받아들여려는 태도를 취한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표면적인 것에 불과할 뿐 진심은 *English*가 아닌 다른 말로 자신들이 불리는 것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다. 이들의 솔직한 심정을 파울러(Doreen Fowler)가 잘 대변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되어야 할 것은 어떤 잉글랜드인도 . . . 마음 속에 장난기가 꿈틀대는 것을 느끼지 않고서는 자신을 *Briton*이라고 부르는 사람은 없고, 혹은 어떤 잉글랜드인도 자신이 *Britisher*로 불리는 것을 들을 때 어색해 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어떻게 잉글랜드 인(an Englishman)이 *England*에 대한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서 *Great Britain*이라는 표현을 써야한단 말인가? 잉글랜드인이 군주를 부를 때 외부 사람 들에게는 *Her Britannic Majesty*이지만, 자신에게는 *Queen of England*인 것이다. 그

6) Krishan Kumar, "Englishness' and English National Identity," David Morley and Kevin Robins (eds), *British Cultural Studies: Geography, Nationality, And Ident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41.

는 *English*를 말한다. 그는 *English* 역사를 알프레드 대왕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연속된 역사로 배웠다. 그는 *Englishman*의 말을 듣고 *English* 신사가 되기를 열망한다.⁷⁾

스코틀랜드인, 웨일스인, 북아일랜드인, 거기에 여러 지역에서 온 이민을 포함하여 이들의 생활방식과 가치관을 모두 포괄하여 영국인의 정체성(*Britishness*)을 정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방식으로 영국인의 정체성이나 국민성을 정의하는 것은 다분히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다. 즉, 포괄적인 정체성은 자연발생적이었다기보다는 시대적 필요의 산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브리티쉬(*British*)’나 ‘브리튼(*Britain*)’이라는 공식용어는 앞으로 300년의 세월이 흐른다고 하더라도 인공적 표현이라는 딱지를 뗄 수 없을 것⁸⁾이라는 지적은 상당한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영국의 문화는 잉글랜드적인 것이 주류를 이루어 왔고, 잉글랜드인들도 영국의 문화에서 비잉글랜드적 요소들을 인정하는 것을 특별한 경우에 한정하고 있다.⁹⁾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면 영국인의 정체성을 말할 때 잉글랜드의 정체성(*Englishness* 혹은 *English National Identity*)을 말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뒷받침하기 위해 본고에서는 영국의 국민성이 형성된 역사적 과정을 살펴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주류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하도록 하겠다. 근대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영국인의 국민성의 형성과정은 크게 네 단계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707년 스코틀랜드와 통합이 이루어지기 이전 잉글랜드의 독자적 정체성이 발전해가던 단계, 18세기~19세기 중반까지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아일랜드를 포괄하는 통합적 정체성이 추구된 시대, 19세기 후반 잉글랜드 중심의 민족적 정체성이 확립된 시대, 20세기에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영국의 정체성으로 확실하게 자리잡게 된 시기가 그것이다.

이 가운데 19세기 후반에 초점을 맞추어 잉글랜드의 정체성의 기초가 된 요인들을 정리해 보기로 하겠다. 물론 그 이전 단계에서도 튜더시대 이후 잉글랜드의 종교적 역할과 민족의식의 성숙, 17세기 이후 자유주의와 개인주의의 급속한

7)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 42; David McDowall, *Britain in Close-Up: An In-Depth Study of Contemporary Britain* (Longman, 2001), p. 10.

8) McDowall, *Britain in Close-Up*, p. 10.

9)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p. 41~42.

신장, 중세 때부터 확고하게 자리잡아온 계급의식 등이 영국인의 정체성을 형성 하는데 상당 정도 영향을 끼쳤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려고 한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영국인의 정체성으로 자리잡게 된 몇 가지 주요 특징을 확인해 보고, 그 특징들이 영국인의 일상에서 어떻게 문화적 언어적으로 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려고 한다.

II. 영국적 정체성의 형성

1. 통합적 정체성의 추구

많은 학자들은 잉글랜드에는 국가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민족주의가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¹⁰⁾ 애국주의(patriotism, 군주주의(royalism), 제국주의는 있었지만 유럽대륙에서 19세기부터 시작된 것과 같은 민족주의는 없었다는 것이다. 19세기 이전에 잉글랜드에 민족주의가 형성되었다는 주장들도 있다. 즉, 잉글랜드 인들은 엘리자베스 시대에 스페인의 무적함대와 맞서 싸우면서 애국적 열정을 경험하기도 했고, 특히 17세기 내전 동안 평등에 대한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그리고 18세기 후반 프랑스혁명과 나폴레옹 전쟁 동안 프랑스에 대항하는 민족적 단결심이 확산되어가면서 민족의식이 생겨났다는 것이다.¹¹⁾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민족주의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건 - 인민이나 국민에 의해 국가가 이루어지는 인민주권 국가 혹은 국민 국가(nation state) - 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민족주의의 시작을, 모든 시민의 평등을 근본원리로 표방했던 프랑스혁명의 결과로 보기 때문이다.¹²⁾ 19세기 후반 이전에 잉글랜드는 인민주권이 이루

10) G. Newman, *The Rise of English Nationalism: A Cultural History 1740-1830*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87), pp. xvii-xviii.

11) L. Greenfeld,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 29-87.

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잉글랜드는 프랑스혁명이 끝나고 나서 적어도 1세기 동안 민족주의가 성립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¹³⁾

그 이전에 잉글랜드인들이 가졌던 정체성은 연합왕국의 구성원으로서 가질 수 있었던 “일종의 국가적 정체성(a national identity of a kind)”이었지 “민족주의적 정체성(a nationalist identity)”¹⁴⁾은 아니었다. 18세기는 잉글랜드만의 배타적인 민족적 정체성을 추구할 시기가 아니었다. 당시는 가톨릭 세력의 위협, 프랑스와의 충돌, 아메리카 식민지들과의 갈등이 깊어져 가는 상황에서 집단적 대응의 필요성이 절실하게 제기되었다. 또 점차로 광대하게 팽창해 가는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도 스코틀랜드나 웨일스 출신 영국인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서 1707년 스코틀랜드가 통합되면서 이른바 통합적 정체성(Britishness)이 추구되었다. 특히 1707년부터 1837년까지 프랑스와의 오랜 정치-종교 전쟁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새로운 인위적 정체성”¹⁵⁾이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시기의 정체성은 이른바 “만들어진 질서”¹⁶⁾였다. 그러므로 이때 만들어진 영국(British state)은 훗날의 ‘국민국가(nation-state)’의 형성과는 크게 다른 것이었다.¹⁷⁾

이러한 결합은 이전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정체성을 억누르지 않고, 그 이전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왔던 지역과 계급에 따른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

18세기와 19세기 전반(前半) 동안 새로 성립된 영국(Great Britain)의 국민들은 자신들을 우선적으로 영국인(Britons)으로 그리고 자신들의 나라를 영국(Britain)으로 생각했다. 이 시절에 영국인들이 애착을 가졌던 것은 주로 제도적

12) P. Alter, *Nationalism*, 2nd edn. (London: Edward Arnold, 1994), pp. 39-41; R. Brubaker,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pp. 35-49.

13)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p. 44-45.

14) *Ibid.*, p. 45.

15) D. McCrone, “Scotland and the Union: Changing Identities in the British State,” Morley and Robins (eds), *British Cultural Studies*, p. 98.

16) L. Colley,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p. 6.

17) McCrone, “Scotland and the Union,” p. 98.

인 것들 - 국교회, 의회,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주 - 이었다. 또 이 시절에는 종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프로테스탄트 국가로 탈바꿈한 영국은 자신을 프로테스탄트 신앙의 수호자로서 어디에서나 유럽의 가톨릭 세력에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국가임을 자임하였다. 과거 스페인이 주도한 가톨릭 세력은 이 시기에는 프랑스가 강력한 후원자 역할을 하게 되었다.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의 프로테스탄트들은 카톨릭을 옹호하는 반동적인 프랑스 군주들에 맞서 프로테스탄트를 옹호하고 제국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동의 목적에서 함께 단결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잉글랜드가 다수 국민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면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개신교의 수호자 혹은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할 때뿐이었다.¹⁸⁾ 당시 영국 제국주의의 확산에 특히 잉글랜드의 복음주의(Evangelicalism)의 이념과 선교활동이 상당한 기여를 하였다.¹⁹⁾

2. 잉글랜드 정체성의 기초

18세기에도 잉글랜드인들이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민족성을 추구한 흔적이 있다. 그 한 예를 잉글랜드를 의인화한 것으로 여겨지는 상상의 인물인 존 불(John Bull)의 캐릭터가 이미 1712년에 고안되었던 데서 찾을 수 있다.²⁰⁾ 19세기에 와서 존 불은 붉은 얼굴을 가진 뚱뚱하고 명랑한 농부나, 실크 해트를 쓰고 조끼를 입고 긴 장화를 신고있는 신사로 그려졌고, 불독 한 마리를 데리고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졌다.²¹⁾ 그는 둔감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상식을

18)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 46.

19) K. Tidrick, *Empire and the English Character* (London: Tauris, 1990), p. 1.

20) 그러나 이때 만들어진 존 불은 잉글랜드 인이 아닌 스코틀랜드의 수학자가 프랑스인의 무역에 대한 부정을 풍자하기 위해서 정직한 포복상으로 그린 인물이었다.

21) 그가 불독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모습은 그가 용감하고 맹렬하고 독립적인 품성을 가졌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의 이러한 외양은 18세기 지방 신사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옛 전원생활의 이상을 되살아나게 한다. 미국의 영클 샘(Uncle Sam)과 비견될 수 있는 이 캐릭터는 19세기에 수백 군데의 풍자만화에 단골로 등장하였다. 많은 영국인들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활약한 윈스턴 처칠 수상에게서 이 남자와 개의 이미지가 융합된 현대 영국인 상의 대표적인 모습을 연상했다고 한다. (James O'Driscoll, *Britain: The Country and Its Peop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p. 11)

민고 예의바르고 공정한 사람으로 묘사되었다.²²⁾ 이 인물은 전형적인 잉글랜드인을 상징하고 오늘날에는 영국인의 국민성을 상징하게 되었다.

잉글랜드의 국가적 정체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난 것은 19세기 말 경이었다. 19세기가 진행되면서 영국인들에게 일체감을 느끼게 했던 프로테스탄트 국가라는 공감대가 점차 약해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이 전반적으로 세속화되어 가는데 따른 결과이고, 특히 독일과 미국의 등장으로 가톨릭의 위협이 약화되었기 때문이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등장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념적인 데서 찾을 수 있다. 19세기는 민족주의의 시대였다. 19세기 후반에 유럽의 민족주의는 크게 발전하였다. 이탈리아와 독일은 민족주의를 중심으로 통일이 되었고, 합스부르크 제국과 오토만 제국은 민족주의에 의해 분열되어가고 있었다. 유럽대륙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민족주의 운동이 점차 확대되어 가고 있었다. 영국에서도 웨일즈와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가 이 시기부터 시작되었고, 아일랜드의 민족주의는 영국의 정치를 분열의 위협으로 몰아넣었다. 이 시기에 민족주의는 문화적인 것이 지배적이었다. 이러한 민족주의의 주요 특징은 언어, 종교, 역사, 혈통 혹은 '인종'이었다. 이러한 것들은 민족의 '정신(soul)'을 표현하고 있다고 여겨졌다.

영국의 지식인들은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적극적으로 반응했다. 언어와 문학 연구, 역사 사료 편찬, 소설과 시, 그리고 민속에서 잉글랜드적인 것을 정의하고 찬양하려는 일종의 문화운동이라고 할만한 움직임이 생겨났다. 1980년대부터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연구들이 이러한 운동의 윤곽을 밝혀내고 있다.²³⁾ 이러한

22) 그러나 영국인들의 생각과 달리 프랑스 사람들을 비롯한 외국인들은 존 불을 거만하고, 섬나라 사람의 편협한 근성을 가진 인물로 부정적으로 보고, 영국인의 예의바른 성격도 위선을 감추기 위한 가식적인 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영국인의 국민성에 대한 유럽인들의 시각은 이중적이다. 현대의 프랑스는 영국인을 "보수적, 배타적, 애국적이며, 자존심이 강하고 편협한 성격을 가졌고 언제나 미국과 유럽 사이에서 갈등하는 사람들"로 보고 있다. (프랑스 관광청 보고서) 16세기 네덜란드 인이 영국인에 대해 가졌던 이미지는 "전쟁에서는 도전적이고 용감하고 열정적이지만, 일관성 없고 경솔하며 허영심 강하고 가벼우며 기만적이며 의심이 많다. (네덜란드인 에마뉴엘 반 메테랑) 19세기에 독일인이 본 영국인은 "영국이 섬인 것처럼 영국인들도 제각각 하나의 섬이다. 가끔 인간적인 온정을 느낄 수 있을 뿐 영국인은 부지깽이처럼 아주 완고하고 딱딱한 사람들"이었다. (프로이센 정치가 칼 오거스트) (Pam Barrett, *Insight Guide England*, Apa Publications, 2000, p. 17)

23) 이러한 내용을 담고있는 대표적인 저서들은 다음과 같다.

운동을 통해 지식인들은 잉글랜드 역시 독자적인 민족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였다. 잉글랜드의 독자성을 추구하려는 노력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영어의 정리였다. 이 새로운 영어는 19세기에 정규 교육이 확대되고 대영제국이 팽창하면서 표준어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의해 탄생하였다. 언어학자들은 표준말로 지배계급이 주로 사용한 캠브리지와 옥스퍼드 지방의 말투가 많이 섞인 말을 추천하였다. 이 영어는 '여왕의 영어(Queen's English)'로도 알려졌지만, 나중에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공인 발음'(RP: Received Pronunciation)으로 불리게 되었다.

이러한 노력은 제임스 머레이(J. Murray)가 1879년에 시작한 『옥스퍼드 영어사전』(The Oxford English Dictionary on Historical Principles)의 편찬으로 이어졌다. 그의 사전 속에서 영어는 역사상 처음으로 완전한 전국적 표준어가 되었다. 1920년대 대중 방송이 시작되면서 국영방송(BBC)이 표준어를 쓰면서 이 언어의 사회적 위상은 더욱 높아졌다.²⁴⁾ 그러나 공인 발음은 전 국민이 쓰는 언어로 발전하지 못했고 상류계급과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쓰는 언어가 되었다.

문학 역시 잉글랜드를 대표하는 요소가 되었다. 18~19세기에 영문학의 '정전(正典, canon)'이 확립되었다. 민족 문화에서 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영문학은 영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가장 크고 지속적인 영향을 끼쳤다.²⁵⁾ 잉글랜드의 문화는 이들 위대한 '민족적' 시인, 극작가, 그리고 소설가들에 의해 창조되었다. 그들의 작품은 잉글랜드 민족의 기상을 최상으로 표현하는

J. W. Burrow, *A Liberal Descent: Victorian Historians and the English P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R. Colls and P. Dodd (eds.), *Englishness: Politics and Culture 1880-1920* (London: Croom Helm, 1986); B. Doyle, *English and Englishness* (London: Routledge, 1989); S. Collini, *Public Moralists: Political Thought and Intellectual Life in Britain 1850-1930* (Oxford: Clarendon Press, 1991); J. Lucas, *England and Englishness: Ideas of Nationhood in English Poetry, 1688-1900* (London: Hogarth Press, 1991).

24) BBC 방송은 표준 영어를 개발하여 보급하기 위해서 극작가(George Bernard Shaw), 계관시인(Robert Bridges), 미술사가(Kenneth Clark), 짧은 언론인(Alistair Cooke) 등 자문위원들을 선정하여 연구를 거듭하였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 BBC는 언어에 관한 권위를 인정받는 대표적 기관으로 자리잡았고, 'BBC 영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었다.

25)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 49.

가치관들과 모든 삶의 방식을 묘사하고 있다.²⁶⁾ 이러한 정전을 담은 『영시의 보고』 (*Golden Treasury of English Verse*) (1861)와 같은 많은 중요한 문학 서적들이 19세기 후반에 등장하였다.²⁷⁾

초서(G. Chaucer)에서부터 빅토리아 시대의 위대한 시인들과 소설가들까지를 망라한 ‘영국 문인’ 시리즈는 영문학의 위대성뿐만 아니라 영국인의 두드러진 민족적 특징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었다. 이들의 작품은 성실성, 개성, 구체성, 인생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에 대한 감각을 영국인의 특성으로 보여주었다.²⁸⁾ 특히 문학 작품에 표현된 낭만주의(Romanticism)는 국민들로부터 항상 높은 호응을 받아왔다. 낭만주의 작품들은 영국인들이 지성보다는 감성을, 철학보다는 시를, 사회 정치 철학보다는 문학과 역사를 더 선호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자연경관의 다양한 모습과 장점들을 담고 있는 낭만주의 작품들을 통해 ‘남부의 자연’은 민족적 상상력의 중심으로 이동해왔다. 문학은 자연을 영국인의 생활의 일부로 자리잡게 만들었고, 반(反)도시적·반(反)산업적 문화를 지속시키면서, 목가적 상상력을 통해 추한 현실로부터의 탈출을 가능케 해주었다.

이 시기에 특정한 지적 경향은 독특하면서 자랑스런 잉글랜드 문화로 규정되었다. 영국의 지적 전통은 베이컨(Francis Bacon), 로크(John Locke), 벤담(Jeremy Bentham), 밀(J. S. Mill), 다윈(Charles Darwin)과 같은 사상가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이 추구한 지성은 경험적, 공리적, 구체적, 개별적인 것을 특징으로 하였다.²⁹⁾ 특히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벤담의 공리주의(Utilitarianism)와 이를 실천할 방법론을 제시해준 ‘철학적 급진주의

26) 지성사가인 콜리니(S. Collini)는 영문학의 이러한 탁월성을 잉글랜드의 정치적 역사적 위대성을 찬양하는 ‘휘그적 역사해석’에 견줄만하다고 높이 평가하였다. (S. Collini, *Public Moralists*, pp. 342~373)

27) Palgrave가 ‘진정한 민족적 명시 선집’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했던 이 책은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다. Sir Arthur Quiller-Couch의 *Oxford Book of English Verse* (1900) 역시 같은 기능을 하였는데 이 저서는 1939년까지 20판을 거듭하여 인쇄되어 거의 50만 권에 달하는 수량이 팔렸다. 또한 John Morley의 책임편집 하에 Macmillan에 의해 *English Men of Letters* 시리즈가 발간되었다(1877).

28)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 49.

29) 이러한 영국의 지적 전통은 대륙의 추상적 형이상학적인 사상과 대립된다. 영국의 지식인들은 대륙의 지적 전통은 비실용성을 낳고, 극단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하는 정치문화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Philosophical Radicalism)'는 이러한 영국의 지적 전통을 잘 실증해 주었다.

제임스 밀(James Mill)과 벤담이 이끌었던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은 지배층이 인민의 행복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인민의 수중으로 정치 권력이 넘어가서 다수결의 원칙이 실현되어야 비로소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 보장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불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적 사회적 급진개혁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그러한 개혁이 평화롭게 추진되자면 의회를 귀족계급이 아니라 중산계급이 지배해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선거권의 확대를 주장하면서 재산에 의한 선거권의 제한을 옹호하였다. 선거권이 중간계급에 한정된다 하더라도 그들은 하층계급을 지도하고 하층계급은 그들을 틀림없이 따를 것이라고 믿었다. 이들은 영국에 중간계급이 의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치개혁을 사상적인 뒷받침을 하여 마침내 선거법 개정과 곡물법 폐지를 통해 중간 계급이 정치적 주도권을 잡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들은 또 사회개혁을 바라는 여론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여 영국에 개혁적 전통을 수립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³⁰⁾

철학적 급진주의와 공리주의가 소수의 지식층에게만 영향을 주었던 반면 '복음주의(Evangelicalism)' 운동은 민족의 성격을 형성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되었다.³¹⁾ 앞에서 말한 철학적 급진주의가 정치적 경제적 차원에서 중간계급의 위상과 역할을 설정했다면, 복음주의 운동은 종교적 차원에서 중간계급의 도덕과 가치관을 추구하였다. 복음주의는 감리교(Methodism)와 국교회 복음주의(Anglican Evangelicalism)를 포괄하는 운동이다. 두 운동 모두 국교회에서 발생한 운동으로 영국인의 정체성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감리교 운동은 18

30) 1832년 선거법 개정을 시작으로 곡물법의 철폐, 형법과 형무소 개혁, 의무교육제도, 최저임금제, 건강보험, 노력연금 등의 실현에는 벤담을 위시한 철학적 급진주의자들의 사회개혁 노력이 크게 영향을 끼쳤다.

31) 철학적 급진주의와 복음주의는 20세기 초 대표적인 역사가 가운데 한 사람인 Elie Halevy의 *The Growth of Philosophical Radicalism*(1901~1904년 발간)과 "The Birth of Methodism,"(1906년 출간)에서 집중적으로 조명되었다. 앞의 저서의 중요성은 말할 것도 없고, 복음주의와 감리주의에 대한 아레비의 논문들은 복음주의가 끼친 독특한 사회적 영향을 탐구한 논문들로 동시대 Max Weber의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에 버금가는 위치를 차지한다는 지적이 있다.(S. Collini, *English Past: Essays in History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72~74.)

세기 중반 대중의 “영적 공허감”³²⁾을 메우기 위해 출현한 운동으로 ‘믿음에 의한 구원’, ‘예정설의 부정’, ‘정화(淨化)’를 강조하는 민주적 종교와 신앙의 대중화를 추구하였다. 또 이 운동은 평신도의 역할 확대, 개인의 신앙 체험 중시, 근로 윤리 등을 강조하면서 전례 없는 대중의 적극적 호응을 받으면서 새로운 종교적 르네상스를 열고 대중들의 가치관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³³⁾ 나아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대중들이 느끼는 불안감과 소외감, 경제적 어려움, 체제에 대한 불만을 달래줌으로써 체제의 안정에 기여하였다.³⁴⁾

감리교 운동의 대상이 일반 민중이었던데 반해 국교회 복음주의 운동은 중·상류층과 국교회 성직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운동의 방식도 대중집회보다는 일종의 점진적 침투의 방법을 택했다. 프랑스 혁명에 충격을 받은 국교회는 평등의 요구와 폭력의 확산을 막기 위해 보수주의적 기풍을 강화하고 중상류 계층의 쾌락주의를 대신할 새로운 종교적 가치관을 필요로 하였다. 이때 복음주의 운동은 이른바 ‘새로운 도덕적 질제’의 가치관을 제시하여, 진지함, 자기 억제, 성적 절제, 품격의 덕목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생활방식을 추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러한 복음주의 운동이 추구하는 미덕들과 중간계급의 가치관은 크게 닮았다.³⁵⁾ 한편 복음주의자들은 부는 신의 축복이며 기존의 사회질서는 신이 부여한 것이라고 말함으로써 중간계급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었다. 또한 복음주의는 종교가 실용적이고 공리주의적인 것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바로 빅토리아적 가치관(Victorianism)의 정신적 기반이 되었다.

32) M. R. Watts, *The Dissents*, vol.1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p. 270.

33) J. Obelkevich, “Religion”, F. M. L. Thompson (ed.), *The Cambridge Social History of Britain 1750-1950*(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 323.

34) 그래서 20세기 초 프랑스 역사가 아레비(Elie Halevy)는 혁명적 프랑스와 안정된 영국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의 하나는 복음주의 종교의 존재 유무에 있었다고 지적했다.(Edward Royle, *Modern Britain. A Social History 1750-1985*, Edward Arnold, 1989, p. 299) 톰슨(Edward P. Thompson)도 비슷한 시각을 가지고 있다. 그는 감리교 복음주의 운동을 정치적 급진주의 운동이 탄압을 받고 좌절해 가는 과정에서 생겨난 하나의 대안으로 파악했다. 즉, 1790년과 1830년 사이 감리교도가 대규모로 증가한 것은 현실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보상심리에서 이 운동에 적극 참여한 결과라는 것이다.(Thompson,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Vintage Books, 1966, chap. 11)

35) 자기 수양, 근면, 정직, 시간의 합리적 이용, 조기 기상, 게으름과 천박함에 대한 비난 등 복음주의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은 중간계급으로부터 적극적인 호응을 받았다.

또한 복음주의는 19세기를 통해 영국의 상류층 사람들에게 신분에 따른 철저한 도덕적 의무를 강조하였다. 상류계급은 이러한 가르침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서 '클렘팸회(The Clapham Sect)'를 결성하고, 의원들은 의회 안에 '성자들(The saints)'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그 실천에 나섰다.³⁶⁾ 복음주의는 낭만주의와 결합하여 인도주의 운동을 추구하였다. 윌리엄 윌버포스(William Wilberforce)가 노예제 폐지 운동을 주도하였고, 셰프스베리 경(Lord Shafesbury)은 사회개혁 운동에 앞장섰고, 윌리엄 부드(William Booth)는 구세군(Salvation Army)을 창설하였다. 복음주의는 19세기에 아프리카, 인도, 중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선교 활동을 하였고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등지에서도 큰 성공을 거두었다.³⁷⁾ 이 운동의 영향으로 상류계급과 중간계급의 가치관과 생활방식이 점차 크게 바뀌게 되었다.³⁸⁾

빅토리아 시대의 교육 또한 영국적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기여를 하였다. 19세기 교육은 중간계급의 도덕과 리더십을 키우는 데 목표를 두었다. 토마스 아놀드(Thomas Arnold)가 교장으로 있었던 럭비학교(Rugby School)가 그 대표적인 경우였다. 아놀드는 교육의 최우선의 목표를 기독교적 신사를 양성하기 위한 인격형성에 두었다. 그는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정직, 책임감, 집단애의 충성심, 용감한 성격을 갖춘 새로운 지배계급인 중간계급을 육성하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에게 있어서 지식을 배우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였다. 존 스튜어트 밀 역시 건전한 성격을 가진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교육의 일차적 목표로 삼았다.

이러한 전통에 입각해서 특히 사립학교는 학문적 능력을 기르는 것 못지 않게 '인격형성(character building)'과 '단체정신(team spirit)'에 중점을 두는 인문교육에 치중한다. 이러한 태도는 영국인들이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지식을 중시하지 않고 지식만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경멸하는 이른바 반지성주의(anti-intellectualism)의 풍조가 생겨나는데 영향을 끼쳤다. 아놀드는 이와

36) 클렘팸회의 활동과 빅토리아적 가치관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Collini, *English Past*, pp. 103~115.

37) 그러나 이 선교활동은 영국의 제국주의 팽창과도 연관되는 부정적 측면이 있다고 지적된다.

38) C. Hill, *British Economic and Social History 1700-1982* Fifth (edn.) (London: Edward Arnold, 1986), p. 214.

같은 성격의 형성과 단체정신에 중요하다는 생각에서 스포츠를 장려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영국의 교육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그 결과, 영국은 아직도 교육정책에 관한 많은 토론에서 어떻게 교육이 유용한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도록 도울 것인가 보다는 어떻게 교육이 더 나은 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할 수 있는가 - 효율성보다는 오히려 사회정의 - 를 주제로 삼는 경우가 많다.³⁹⁾

19세기 말 영국인의 역사의식 또한 강력한 영국적 특성을 나타냈다. 자신들의 역사에 대한 잉글랜드인들의 열광적인 태도는 이미 17세기 말부터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⁴⁰⁾ 그러한 훌륭한 역사 속에는 하원의 오랜 전통과 독립성, 모든 영국인의 자유의 기초로서의 마그나카르타의 신화, 중세부터 17세기로 이어져 내려오면서 군주의 권력을 제한했던 입헌주의 전통, 원시 튜튼(Teuton) 족의 자유와 그것을 말살하려고 했던 ‘노르만의 멍에(Norman Yoke)’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역사적 신화는 학교의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고 영국적 전통의 핵심요소로 자리잡게 되었다. 많은 역사가들의 저술 속에서 영국의 자유는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확산되어온 “한 단일한 진보의 드라마”⁴¹⁾로 서술되고 있다. 이러한 역사적 전통에 대한 자부심은 영국이 미래에도 세계에서 가장 부유하고 강력한 국가로서 영광을 누릴 것이라는 낙관론을 갖게 만들어 주며, 영국인들이 보수적 성향을 갖도록 중요한 심리적 동기를 제공해 주었던 것이다.

끝으로, 영국의 국가적 정체성은 제국주의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영국은 대외적으로 전 세계에 광대한 식민지를 가진 대영제국(The British Empire)이었다. 또 이 나라는 “내적 식민정책(internal colonialism)”이 낳은 “내적 제국(internal empire)”⁴²⁾인 그레이트 브리튼(Great Britain) 혹은 연합왕국(The United Kingdom)이었다. 영국의 이러한 ‘이중적 정체성’을 고려할 때 잉글랜드의 정체성은 다른 국가들이 채용해온, ‘안으로부터’ 정체성을 발견하는

39) O’Driscoll, *Britain*, p. 132.

40) H. Butterfield, *The Englishness and his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4), p. 69.

41) Burrow, *A Liberal Descent*, p. 295.

42) M. Hechter,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London: Routledge, 1975).

전통적 방식⁴³⁾을 탈피해서 “제국주의 역사의 틀 안에서 조명되어야만 한다”⁴⁴⁾ 즉, 영국인의 정체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국주의가 영국인의 의식 속에 남겨 놓은 “일종의 잔재(a kind of residue)”⁴⁵⁾를 중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광대한 식민지를 통치했던 관리들, 인도와 아프리카에서 복무했던 군인들, 대양을 향해하면서 생애를 보낸 선원들,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성직자들은 그들 자신들에게 뿌리깊은 제국주의적 사고방식과 민족적 우월감을 심어주었다. 또한 영국인들은 현대의 미국이 최강의 나라가 되는데 “핵심적인 역할”⁴⁶⁾을 한 것이 바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아일랜드 출신의 미국인들이라는 긍지를 가지고 있다. 영국인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역사적 건물들과 문화재들은 아직도 영국인들에게 자신들이 세계를 지배했던 시절에 대한 진한 향수를 느끼도록 한다.⁴⁷⁾ 역사적 순간들을 기억하게 하는 많은 도시의 거리들은 제국주의적 팽창과 지배가 영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얼마나 깊게 영향을 끼쳐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⁴⁸⁾ 그러므로 제국주의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절에 대한 자부심과 세계에서 최고를 자랑했던 우월감이 아직도 영국인의 의식 저변에 깊이 깔려있다. 1990년대까지도 영국인의 생활과 사고방식에 제국주의의 유산이 크게 자리잡고 있다.⁴⁹⁾ 영국인들의 우월감은 아직도 다른 나라 국민이나 언어에 대해 냉담하거나 무관심한 태도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43)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찾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방식 - 민족문화의 주요 특성들 (행동양식, 도덕률, 전원과 도시의 풍경, 주요 역사적 사건들)의 탐구 -을 추구했던 대표적 연구자들로는 프리스틀리(J. B. Priestley, *English Journey*, 1934), 오웰(G. Orwell, *The Lion and The Unicorn*, 1941), 그리고 가장 뛰어난 설라와 예츠먼(W. C. Sellar and R. J. Yeatsman, *1066 and All That*, 1930) 등이 있다.

44)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 43.

45) *Ibid.*

46) Lewis, *Cultures Collide*, p. 75.

47) 시티(The City of London)에 있는 잉글랜드 은행과 증권거래소 (Royal Exchange)는 영국이 세계의 금융 중심지였던 사실을 상기시켜주고, 리버풀의 증권거래소 건물 벽에 남아있는 아프리카인의 머리와 코끼리의 부조(浮彫)는 노예무역이 이 도시에 가져다 주었던 풍요로움을 상기시킨다. 또 식민지 지배를 통해 가져왔던 문화재와 보물들로 넘쳐나는 런던의 대형 박물관들 등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건물들이 대영제국의 영광을 확인시켜 준다.

48) C. Hall, “British Cultural Identities and the Legacy of the Empire,” Morley and Robins (eds), *British Cultural Studies*, p. 27.

49) *Ibid.*, p. 28.

지금까지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만들어져 가는 과정들을 통해서 대략 다섯 가지 측면에서 영국인들의 기본적인 태도와 가치관을 발견해낼 수 있다. 즉, 개인주의, 보수주의, 계급의식, 공공의식과 아마추어 정신, 자연사랑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영국인의 국민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것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제 영국인들이 이러한 가치들을 일상적인 생활방식과 문화 속에서 그리고 언어를 통해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를 살펴볼 차례다.

Ⅲ. 영국적 정체성의 문화적 표현

1. 개인주의

영국은 대부분의 유럽국가들보다 중앙집권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에도 자유로운 풍조와 향토적 사고를 바탕으로 한 강한 개인주의가 자리잡고 있다. 영국인의 자유는 부분적으로는 중앙정부의 권위에 강력하게 저항한 다양한 종류의 제도들이 성장한 오랜 역사에서 파생되었다. 그래서 다른 많은 나라와 달리 지방정부가 아직도 지역적 정체성과 방식을 고수하는 전통이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영국에서 개인과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풍토는 17세기에 시민사회가 성립하고 자유주의가 점차 발전하면서 확고한 정치적 전통으로 자리잡게 되었다.⁵⁰⁾ 전통과 관행을 통해 발전해온 개인주의는 오늘날 지역의 일터와 공동체의 조직 속에 깊게 뿌리내렸다.⁵¹⁾

개인주의가 발전해온 오랜 전통으로 영국인은 개인이 국가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당연시한다. 그 때문에 영국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규칙과 규제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적다. 그 단적인 예로 영국은 시민들이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아도 되는 일부 유럽 국가들 가운데 한 나라이다. 국가에 대한 개인의 의무는 법을 위

50) 영국 자유주의의 발전과 개인주의와의 관계에 관해서는 본인의 줄고, 「자유주의」, 김영한 편, 『서양의 지적운동 II』 (지식산업사, 1998), pp. 65~109 참고.

51) McDowall, *Britain in Close-Up*, p. 102.

반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데 한정되어 있다. 개인의 다양한 선택과 의사를 존중하는 전통 때문에 영국은 다른 유럽 국가들에 비해 종교나 정치가 개인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지 못한다. 개인의 종교적 정치적 성향은 직장의 선택, 노동 조합의 가입, 친구와의 교체, 이웃과의 교류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인과 개성을 중시하는 사고는 주거와 옷차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영국에서 아파트가 인기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여지를 별로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⁵²⁾ 영국의 주택들은 개인이 짓는 것이 아니라 단체가 짓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다보거나 멀리서 볼 때는 모두 똑같은 모습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보면 각각의 집들이 모두 차이가 있다. 모두 주인의 개성대로 꾸며져 있기 때문이다. 현관문의 형태나 창틀의 색깔이 다르고, 정원의 모습이 다양각색이다. 영국인들은 유별난 복장에 대해서도 그 사람의 개성의 표현으로 생각하고 너그럽게 받아들인다. 영국인들 일부, 특히 젊은이들은 상대방의 남루한 차림이나 개성적인 옷차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 새 옷을 사 입을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입었던 옷(cast-offs)을 사 입으려는 나라는 그리 많지 않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많은 사람들, 특히 학생들이나 젊은이들이 전국에 걸쳐 퍼져있는 수많은 자선 상점(charity shop)에서 싼 중고 옷들을 즐겁게 고르고 있다. 개성이 있는 패션을 추구하는 상당수 젊은이들은 이러한 상점에서 독특한 옷들을 사서 입고 주위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다. 서유럽 국가의 국민들 가운데 가장 자유로운 복장을 하거나 남루한 옷을 입는 국민이 바로 영국 국민이다.

영국인의 개인주의는 사생활을 보호받으려고 하는 열망에서 가장 강하게 표현된다. '영국인에게 집은 그의 성이다'는 말은 영국인이 사생활을 얼마나 중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영국인이 아파트를 싫어하는 정서가 강한 것도 아파트가 개인의 사생활을 보호해 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다수 영국인들은 독립가옥에서 살면서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은 희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가까운 사이가 아닌 상대방이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것을 무례하게 여긴다. 가까운 이웃이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서로의 생활에

52) O'Driscoll, *Britain*, p. 178.

참견하지 말아야 한다. 사생활을 중시하는 영국인의 태도는 청소년의 성에 대한 시각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대다수 성인은 성숙한 청소년들의 성에 관한 간섭은 그들의 사생활에 대한 침해이므로 용납될 수 없다고 본다.⁵³⁾

2. 보수성

영국인들은 전통과 안정을 상징하는 것들을 좋아한다. 영국인의 보수성은 불확실한 현재보다는 대영제국 시절의 더 풍요롭고 안정된 시절에 대한 강한 향수에서 연유된 것이기도 하다. 대영제국 시절 이전에도 영국은 전통적인 것들을 잘 유지해 오고 있었다. 영국은 전국적으로 그 지역의 특징을 보여주는 많은 전통적인 행사와 축제가 매년 열리고, 박람회 만해도 7천 개가 열린다.⁵⁴⁾ 정치인들도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 아직도 ‘가정의 전통적 가치들’을 강조한다. 이러한 영국 국민의 보수성 때문에 20세기에도 반(反) 모더니즘(anti-modernism)은 영국 문화의 지배적 경향이였다.

영국인들은 새집에서 사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지 않는다. 그들의 크리스마스 카드에는 수 세기전의 풍경들이 주로 담겨 있다. 그들은 펍(public house)도 세월의 묵은 때가 낀 것처럼 보이는 곳을 더 좋아한다. 어린이들이 읽는 책들도 옛날 이야기들을 주로 담고 있다. 자연에 대한 사랑도 안정을 원하는 영국인의 보수성에 기인한다. 영화, 댄스 홀, 축구 경기장에서 표현된 도시 노동계급의 대중문화는 모더니즘과 관련이 적었다.

영국인들은 변화보다는 친숙한 환경을 선호하기 때문에 집을 떠나 멀리 옮겨가기를 꺼린다. 그들은 고향을 떠나는 일을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떠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만 한다. 일자리가 없다는 것이 고향을 떠나는 충분한 동기가

53) 특히 젊은 세대의 혼전 관계 등 성도덕에 대한 입장에서 도덕적 측면에서 반대하는 성인은 남녀 모두 20%를 넘지 못한다. 스웨덴과 독일은 이보다 훨씬 낮아서 !0%에도 못 미친다. 반면 미국의 남성은 약 32%, 여성은 45% 이상이 찬성하지 않는다. 아일랜드는 남녀 모두 40% 이상이 반대하고 있다. (Susan McRae ed., *Changing Britain: Families and Households in the 1990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p. 8-9).

54) C. Kightly, *The customs and ceremonies of Britain* (London: Thames & Hudson, 1986).

되지 못한다. 또 다른 곳에 살더라도 자신이 성장한 집과 비슷한 집에서 살려고 애쓴다. 주택이나 건물을 지을 때도 현대적인 건축을 추구하지 않는다. 거실과 침실이 아래층과 위층으로 구분된 전통적인 2층 가옥을 선호한다. 1980년대에 건축분야에서 전통적 양식과 현대적 건축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쟁이 전개되었다.⁵⁵⁾ 이 시기에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콘크리트로만 지어진 고층빌딩에 대한 반발이 거셌다. 이 때 찰스 황태자가 전통적인 건축 양식과 건축재료들로 복귀하는 주장에 앞장을 섰고, 많은 국민들은 그의 입장에 공감하는 것으로 드러났다.⁵⁶⁾

영국 국민 다수는 유행을 따라 옷을 입기보다는 보수적인 복장을 선호한다. 소수의 상류층과 법정변호사, 외교관, 고급장교, 보수당 의원과 같은 전문직 사람들은 세련된 정장 스타일로 옷을 입어왔다. 그들 가운데 많은 수가 특별한 주문한 슈트를 착용하고 있기 때문에 옷차림만 보아도 그가 상류층 사람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다. 대다수 시민들은 변화가 상점에서 옷을 사 입는다. 그들은 영국 중산계급의 옷들을 입는데 이들 의복들은 아주 무난한 것들이지만 유럽의 다른 지역 국민들처럼 현대식의 유행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실제로, 영국인들은 유럽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국민들로 소문이 나 있지만 그들은 그런 평가에 신경 쓰지 않는다.⁵⁷⁾

영국 통치제도의 특징은 다른 나라들과 다르며, 전혀 현대적이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가운데 가장 두드러진 것은 헌법이다. 영국은 헌법이 없는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대신, 국가를 통치하고 국민의 권리의 근거로 삼는 원칙들과 절차들은 수많은 다른 근거들로부터 온다. 그것들은 수세기에 걸쳐서 점차로 발전해 왔다. 영국 사람들은 영국적임을 상징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완강하게 고수하려는 보수적인 태도를 취한다. 영국인들은 길 왼편으로 운전하는 관행, 파운드와 온스로 물건을 사고파는 관행, 일기예보를 화씨로 받아들이고, 유럽과 1시간 시차를 두고, 4월 초부터 회계 연도를 시작하는 관행을 고수하고 있다. 영국인들

55) McDowall, *Britain in Close-Up*, p. 106.

56) 찰스 황태자는 19세기 초 건물인 네셔널 갤러리(National Gallery)에 모더니즘적 요소를 덧 붙이는 것을 막기 위해 개입하였고, 시티(City of London)에 모더니즘 계열의 건물을 세우는 것을 막았다.

57) McDowall, *Britain in Close-Up*, p. 105.

은 자기나라의 제도가 다른 나라의 제도와 뭔가 다르다는 것에서 오히려 자부심을 느낀다. 영국인이 변화하지 않으려는 좋은 이유는 다른 국민들과 다르다는 데 있다. 이러한 점에서 영국인들의 보수주의가 그들의 개인주의와 결합했다고 할 수 있다.⁵⁸⁾

영광스런 시절에 대한 노스텔지어와 전통적인 것에 대한 향수는 그것을 상품화하고 산업화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1980년대에 잉글랜드적인 것이 영국의 정체성으로 부각되면서 마가렛 대처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움직임이 급속히 확산되었다. 이 시기에 과거 상류층의 고상한 생활상, 역사적 유물과 저택, 영국적 자연에 대한 동경심을 확산시키는 이른바 ‘헤리티지(heritage)’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러한 내용을 영상으로 정확히 재현하여 영국인들에게 노스텔지어를 불러일으키는 ‘헤리티지 영화(Heritage Films)’를 만들어 크게 성공하여 영국적 특성을 다시 세계에 알리면서 국제 영화계의 주요한 한 장르로 자리잡게 되었다.⁵⁹⁾ 헤리티지를 관광업과 연계시킨 이른바 ‘헤리티지 산업(Heritage Industry)’이 대표적인 문화산업으로 각광을 받게 되었다. 80년대에만 41 곳의 헤리티지 센터가 세워졌고 어느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잉글랜드의 역사적 장소들을 방문하였다.

3. 계급의식

현대의 영국인들은 아직도 계급을 크게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⁶⁰⁾ 영국인은 노동계급, 중류계급, 상류계급으로 비교적 구분이 잘 되어 있다. 오늘날은 노동계급에서 중간계급으로의 사회적 이동이 늘고 있고 중간계급의 폭이 점차 넓어져 가고 있다. 아직도 배타적인 엘리트 계층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영국인들이 어떤 특정 계급으로 태어나서 다른 계급으로 이동할

58) O’Driscoll, *Britain*, p. 59.

59) 헤리티지 영화에 관해서는 본인의 줄고, 「대처리즘과 영국 영화의 르네상스: ‘헤리티지’ 영화」(대구사학 72집, 2003년 8월 호), pp. 439~470 참고.

60) 1991년의 조사에서 응답자의 29%는 중류계급, 65%는 노동계급이라고 대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The little class game,” *The Economist*, 12 September, 1992, p. 64.)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낮다. 영국인의 계급 차이는 교육, 언어, 가치관, 태도, 생활방식 등에 반영되어 나타난다.

영국의 계급사회를 존속시키는 데 대표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사립학교 교육이다. 미국인들은 학벌을 말할 때 주로 대학을 말하고 중·고등학교는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 반면, 영국인들은 대학과 중등학교에 똑같은 비중을 둔다. 영국의 사립학교(public school)는 과거부터 중·상류층의 아동들을 교육하는데 중요한 몫을 담당해왔다. 오늘날에도 대개 공립학교보다는 사립학교가 시설도 좋고 대학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올리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학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립학교에 보낸다. 사립학교의 원래 목적은 자기 학교 출신 학생들이 군대, 기업, 법조계, 공무원, 그리고 정치분야에서 고위직을 차지하도록 준비시키는 데 있었다. 그리고 사립학교는 학문적 능력을 배양하는 것 못지 않게 '인격형성(character building)'과 '단체정신(team spirit)'에 중점을 두는 인문교육에 중점을 두어왔다.

사립학교에서 학생들은 사회적 특권의식을 갖도록 교육받는다.⁶¹⁾ 오늘날 사립학교 학생은 전체 학생의 7%에 불과하지만, 이 학생들은 특별한 의복을 착용하고, 앞에서 말한 표준 발음과 어휘를 사용하고,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엘리트 문화와 그들만의 독특한 태도를 익히게 된다. 사립학교에서 이렇게 이루어진 교육은 학생들에게 평생 영향을 끼친다. 이들은 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도 자신들의 습관과 언어를 계속 유지하면서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동떨어진 보수적 배타적 집단을 형성한다. 일부 영국인들은 이들 사회상류층이, 자신들의 전공분야와 무관하게 국가의 주요분야의 요직들을 거의 독점하면서, 계급사회를 존속시키고, 국가적 비능률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비판을 가하기도 한다.

예의를 중시하고 참을성을 기르고 질서를 존중하는 영국인의 태도는 부분적으로는 계급문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영국인의 가정교육은 무엇보다도 자식을 예의바르게 키우는 데 주안점을 둔다.⁶²⁾ 남의 아이에 대한 관심을 표시할 때 무엇보다도 그 아이가 예의가 바른가를 우선적으로 언급한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61) McDowall, *Britain in Close-Up*, p. 93.

62) M. J. Gannon, *Understanding Global Cultures* (Sage, 2001), 최윤희 외 옮김, 『세계 문화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3), pp. 350~351.

적절한 매너를 가르치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쏟는다. 또 영국인은 어려서부터 ‘윗입술을 꼭 다물도록’ 교육을 받으며 자라는데 이것은 감정을 억제하는 데 익숙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상류층 사람일수록 감정을 절제하는 태도를 보이려고 한다. 급박한 상황이 아닌데도 감정을 터뜨리는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 또는 불안정한 사람으로 보인다. 그래서인지 영국 성인의 자제하는 태도만큼은 어느 나라 사람보다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심지어 영국인은 고객으로서 성의 없는 대우를 받을 경우에도 별 불평 없이 받아들인다. 또 환자들은 의사의 조언을 잘 따르고 학생들은 교사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인다.⁶³⁾ 이러한 태도는 잘 참는 것이 귀족적인 태도라는 사고방식에서 일부 생겨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국은 계급에 따라 먹는 음식도 차이가 난다.⁶⁴⁾ 상류계급(upper class)은 다른 계급에 비해 고급 음식점에서 외식의 빈도가 월등하게 높고, 식료품 구매에도 가장 많은 지출을 한다. 그들은 생 쇠고기, 어류, 야채, 생 과일을 많이 구입하는 반면, 소시지, 가공된 육류, 피시 앤 칩스(fish & chips), 우유, 통조림, 야채, 감자, 차(tea) 종류는 비율이 낮다. 또 와인과 치즈를 구입하는 비율이 매우 높고 건강식에 관심이 많다. 중간계급은 음식의 소비성향이 전반적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계급이다. 이들은 외식보다는 집에서 식품을 소비하는 경향이 크며, 빵, 우유, 감자를 재료로 한 음식, 피쉬 앤 칩스(fish-and-chips), 차, 설탕 소비 비중이 높다.

중간계급 가운데서도 단순 사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은 음식을 구입하는데 드는 지출이 적고 식습관도 뚜렷한 특징을 보이지 않고, 외식을 하거나 펍에서 음주를 하는 빈도도 낮다. 자영업을 하는 중간계급의 식품구입 방식은 노동계급과 비슷하다. 이들은 쇠고기, 베이컨, 마가린, 감자를 주로 먹으며, 펍에서 술을 마시는 것을 즐긴다. 노동계급은 외식보다는 사 가지고 가는 음식을 선호하며, 빵, 소시지, 맥주, 피쉬 앤 칩스, 설탕, 차, 통조림 야채의 구입 비율이 높다. 다른 계급에 비해 야채, 과일, 와인의 구입 비율이 낮다.

63) G. Hofstede,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1991).

64) A. Warde, "Food and Class," N. Abercrombe and A. Warde (eds.), *The Contemporary British Society : Reader* (Cambridge: Polity Press, 2001), pp. 210~220.

식사에 대한 명칭도 계급마다 다르다. 도시의 노동계급(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인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티(tea)’는 일터에서 집에 돌아오자마자 6시경에 먹는 저녁식사를 말한다. 다른 계급에게 티는 5시경에 먹는 한 잔의 차와 간식을 의미한다. ‘서퍼(supper)’는 저녁을 티라고 부르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 일상적인 말이다. ‘디너(dinner)’ 역시 종종 저녁 식사를 의미하는데, 다소 큰 규모의 식사나, 비교적 늦게 하는 식사, 공식적인 식사를 말하기도 한다.

4. 공공의식과 아마추어 정신

영국인은 개인주의적임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적 정신을 추구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 영국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교제를 중시하기 때문에 펍이나 노동자 클럽, 혹은 다양한 스포츠와 여가 활동 등을 통해 타인들과의 접촉을 꾀한다. 비슷한 관심사나 태도를 갖는 사람들과의 만남과 공공 활동을 통해 자신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갖게 된다. 영국인들은 공공의 문제에 참여하여 일정한 역할을 하는 것을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로 여기는 강한 공공의식을 가지고 있다. 특히 영국인은 오래 전부터 자신과 공동체를 위해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해온 전통을 자랑한다.⁶⁵⁾ 현재 정부에 정식 등록된 자선단체의 수가 18만 개 이상이 되고, 스포츠 클럽, 여행모임, 사회운동 단체 등 미등록 단체도 30만 개 이상이 존재한다.

영국은 공적 영역에서 ‘능력이 있는 아마추어’의 봉사에 의존해온 오랜 전통이 있다. 그들은 사회가 ‘조금씩 나눔(chipping in)’의 기초 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지향할 때 잘 유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공유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여가시간 일부를 할애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남을 돕는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영국인들은 ‘단지 자신의 일만을 잘 하는 것’만으로는 그의 모든 행동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특히 사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일수록 그 신분에 따르는 도덕상의 의무(noblesse oblige)를 다 해야 한다는 사고방식과 관행이 전통으로 자리잡아 왔다. 이러한

65) McDowall, *Britain in Close-Up*, p. 102.

정신은 국민들의 광범위한 봉사활동, 의회 의원들의 활동, 일반인의 재판 참여, 교육제도, 아마추어 스포츠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인들이 가장 중요시하는 타인과의 접촉 가운데 하나가 봉사활동이다. 영국인들의 봉사활동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복지 국가가 생겨나고 사회 봉사라는 개념이 존재하기 이전에도 영국에는 빈민들과 불행한 사람들을 돕기 위한 수많은 자선 단체가 있었다. 이 단체들은 대부분 무급 자원 봉사자들 특히, 여성들의 봉사로 움직여졌으며, 자발적인 기부금에 의해 운영되어 왔다. 그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단체가 재난구제와 제3세계의 빈민구호 활동을 하는 옥스팜(Oxfam)⁶⁶이다. 또 절망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전화상담을 하는 '사마리아인들(The Samaritans)', 19세기에 런던의 빈민가에서 기독교적 선교활동을 하기 위해 군대식으로 조직되어 곤궁한 사람들을 돕는 '구세군(The Salvation Army)', 19세기에 설립되어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면서 고아들에게 거처를 제공하는 단체(Barnado's), 정신장애자를 돕는 단체(MENCAP) 등이 잘 알려져 있다. 이러한 자선단체들은 규모가 크건 작건 모두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시간, 기술, 돈으로 운영된다.⁶⁷

전통적으로 영국인들은 하원 의원들을 전문 정치인들로 보기보다는 자신들의 일과시간 일부를 할애해서 국민들을 대변하고 봉사하는 아마추어 정치인으로 간주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 때문에 의원직은 20세기 초까지도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사회지도층이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자리였다. 오늘날에도 영국의 의원들은 다른 유럽 국가의 의원들과 비교할 때 많은 급여를 받지 못한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두 명 혹은 그 이상의 의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공동으로 이용하고, 한 사

66) 본래 명칭이 The Oxford Committee for Famine Relief인 이 단체는 영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잘 알려진 봉사단체로서 1942년 식량사정이 아주 어려운 다른 유럽국가의 사람들에게 식량을 보내주기 위해서 시작되었다. 오늘날에는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활동하면서 비상사태가 발생한 지역에 도움을 주면서, 정부와 협력하여 빈민을 돕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전국에 걸쳐서 800개 이상의 상점으로 이루어진 판매망을 통해서 무급 자원봉사자들이 중고물건과 서적, 제3세계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팔고 있다. 이 단체는 연간 약 1억 파운드의 판매고를 올린다.

67) 자선 단체들은 전부 합해 연간 약 150억 파운드 이상의 수입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연간 활동비가 1천 파운드에 못 미치는 많은 자선단체들이 있다. 일부 단체들만 1백만 파운드 이상의 경비를 쓴다.

람의 비서가 몇 의원을 돕는다.

치안판사 제도는 영국의 공공생활에서 아마추어리즘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이다.⁶⁸⁾ 치안판사들이 주재하는 재판은 1327년부터 시작되었고, 이러한 제도는 시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다른 시민들에 의해 재판을 받는 사법제도의 선례가 되었다. 시민재판관을 맡는 사람들은 과거에는 지역의 중간계급이나 혹은 상류 계층의 유지들(지주, 의사, 퇴역 장교, 사업가 등)인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치안 판사는 좋은 평판을 받는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 지방위원회가 선발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신들의 일상 업무를 보면서 시간제로 재판을 맡는다. 그들은 필요 경비 외에 전혀 보수를 받지 않는 명예직으로 봉사한다.

영국인은 축구, 골프, 테니스, 배드민턴과 럭비 등 많은 세계적인 스포츠를 발명해 냈다. 빅토리아 시대의 사립 중·고등학교들은 조직적인 경기가 심성 발달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믿었다. 즉, 스포츠는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성적인 기독교 정신을 함양하고 단결심·용기·복종심·리더쉽 등을 키우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겼던 것이다. 이러한 경기들은 영국인들의 '페어 플레이' 정신을 키우는데 도움이 되어왔다. 중요한 것은 승리나 패배가 아니라 어떻게 경기에 임했느냐에 달려있다. 패배는 단지 '경기의 일부'일 뿐이다. 이러한 태도가 바로 아마추어 정신으로 여겨졌다. 영국인은 스타플레이어만 높이 평가하지 않고, 협동심을 잘 발휘하는 선수와 팀웍이 잘 이뤄지는 팀을 그 못지 않게 높이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다.

5. 자연 사랑

영국 대중문화의 가장 두드러진 양상 가운데 하나는 자연에 대한 사랑이다.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자연은 평화와 고요함, 아름다움, 건강과 범죄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영국은 인구의 80% 이상이 도시나 읍에서 거주하는 국가다. 그러나 대부분의 영국인은 도시에서의 생활을 경제적 필요 때문에 사는 '부자연스러운' 삶으로 생각하면서 산업사회의 문화를 거부한다.⁶⁹⁾ 영국인들이 전원 생활을 동

68) *Ibid.*, p. 109.

경하는 것은 안정을 추구하는 영국 보수주의의 또 다른 한 단면이다.⁷⁰⁾ 전원생활에 대한 향수는 부분적으로 2세기 전에 산업혁명이 시작되면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에 대한 상실감과, 영문학의 강력한 주제였던 자연에 대한 낭만적 동경에서 유래하는 것이다.⁷¹⁾

많은 영국인들이 꿈꾸는 집은 창문 너머로 장미가 자라고 있는 시골의 초가집이다.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들은 많은 여가 시간을 시골에서 보낸다. 그들은 산뜻한 관목들이 늘어서 있고, 둘레에 넓은 녹지와 조화롭고 자연스럽게 보이는 18세기 풍의 정원들로 둘러싸여 있는 초가집들과 커다란 시골 저택들로 이루어진 이상향에 대한 깊은 향수를 가지고 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중상류층은 주말에 휴식을 취하기 위해 시골에 초가집을 소유하고 있다. 그들은 자연에 가까이 하는 방법으로 정원을 직접 만드는 경우가 많다. 1971년에서 1991년 사이에 농촌 인구는 거의 200만 명 혹은 17%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영국인들 특히 잉글랜드인들의 시골에서 살려는 욕구가 지속적으로 커져 가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⁷²⁾ 이러한 추세는 유럽에서 영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다.⁷³⁾

내셔널 트러스트(The National Trust) 운동은 산업혁명 후에 잃어버린 농촌의 낙원에 대한 향수가 커져가면서 생겨난 운동이다.⁷⁴⁾ 이 단체는 1895년에

69) McDowall, *Close-Up in Britain*, p. 105.

70) O'Driscoll, *Britain*, pp. 60~61.

71) McDowall, *Close-Up in Britain*, p. 104.

72) 1851년에 조금 더 많은 인구가 도시에 살았으며, 지속적인 농촌인구 감소로 1901년에 이르러서는 77%의 인구가 도시에 살게 되었다. 같은 기간에 총 국민소득에서 차지하는 농업의 비중이 20%에서 약 6%로 하락했다. 농업이 영국의 산업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하락하여 1980년에 이르러서는 2%대에 이르게 되었다.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숫자도 이 시점에 이르러 고작 57,600 명에 불과하게 되었다. 그러나 1911년부터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 추세가 멈췄다가 점차 다시 증가하게 되었다. (B. A. Holderness, *British Agriculture since 1945*, Manchester: Manchester University Press, 1985, pp. 170~172)

73) A. Howkins, "Ruality and English Identity," Morley and Robins (eds.), *British Cultural Studies*, p. 146.

74) The 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and Natural Beauty는 세계에서 가장 대규모의 환경보존 단체이다. 영국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토지면적이 약 586,000 에이커(거의 2,400 평방 킬로미터)이고, 매입한 해안선의 길이가 500마일(약 800 킬로미터) 이상이 된다. 이 단체가 보유하는 자산들 가운데는 해안들, 유명한 정원들, 마을들, 농장들, 풍차와 물방앗간들, 호수와 언덕들, 성당들, 교회건물들, 선사시대와 로마

산업화로 말미암아서 자연환경이 파괴되고 옛 건축물들이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는 동기에서 몇 사람에게 의해 설립되었다. 이 단체는 입회비를 납부하는 민간인들에 의해 운영되며,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거나 운영에 개입하지 않는 순수 공익단체(a charity)이다. 이 단체의 활동은 가능한 한 많은 영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역사적 건물들을 매입하여 잘 보존하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1970년대 후반에 315,000명이던 회원 수가 1997년에 이르러 240만으로 급속하게 증가한 이유는 자연에 대한 사랑과 문화유산에 대한 동경을 촉진시키려는 이 단체의 노력이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1996년 한 해에 내셔널 트러스트에 속한 문화유산과 자연을 방문한 사람의 숫자가 1,100만 명을 훨씬 넘었다. 실제로 다수의 영국인들이 전원생활에 대해 거의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연에 대한 사랑은 그들의 정체성의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남아있다.⁷⁵⁾

최근 영국의 하위문화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독특한 것들 가운데 하나가 ‘뉴에이지 방랑자들(New Age Travellers)’이다. 이들은 도시적 삶을 거부하고 자연스럽고 이상적인 소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소규모 집단을 결성해서 이동주택에 살면서 시골을 떠돈다. 이들은 1960년대 히피들의 자연스러운 후예들이다. 1980년대 보수당 정부 하에서 그들은 자주 단속을 받았다. 그러나 ‘불결한 거렁뱅이들’로 비난을 받지만, 이들은 전국적으로 깊은 영향을 끼쳐왔다. 위기에 처한 생태와 환경에 관한 그들의 유별난 관심은 다수 국민이 자연파괴의 어리석음을 인식하게 되면서 점차 지지를 받게 되었다. 1990년대 중반 새로운 큰 도로를 놓는 것을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환경운동가들(eco-warriors)’은 주로 이들이거나 이들로부터 영감을 얻은 사람들이었다.

시대의 유적들, 중요한 조수(鳥獸) 보호구역들, 그리고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 산업혁명 초기의 공장·기계·제품 따위를 연구하는)의 표본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활동을 뒷받침하고 있는 법률들 가운데는 정부라고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이 없이는 이 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어떤 토지도 수용(收用)할 수 없도록 하는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75) McDowall., *Close-Up in Britain*, p. 105.

IV. 영국적 정체성의 언어적 표현

1. 언어의 특징

영국인의 언어는 영국인의 국민성을 잘 반영하고 있다. 영국인은 어느 나라 사람들 못지 않게 절제된 언어, 완곡한 화법, 유머를 통한 독특한 의사표현 방식을 가지고 있다. 영국인은 직설적인 표현은 피하고 대화에 신중을 기하는 경향이 있다. 영국인은 의사를 전달할 때 내용을 상세하게 말하는 태도는 불필요하며, 상대방을 조금 불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여긴다.⁷⁶⁾ 그러면서도 상대방과의 몇 마디 대화 속에서 그의 경제적 지위, 교육 수준, 출신 성분, 잠재력 등을 파악한다.

영국인들은 절제된 의사표현을 하는 대표적인 국민이다. 의사소통을 구두로 하든 서면으로 하든 상관없이 정확한 사실과 숫자는 가급적이면 피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감정을 표현할 때도 마찬가지다. 영국인들 특히 잉글랜드인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도 더 내성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애정이나 우정을 표시하는 일은 드물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표현이 예의에 어긋나지 않고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배려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그래서 영국인들의 다양한 의사표현은 일반적으로 미묘함, 부정확성, 모호함을 특징으로 한다. 같은 내용의 말을 할 때 미국인들의 말투와 영국인들의 표현방식을 비교해 보면 이러한 특징을 잘 알 수 있다.⁷⁷⁾

(미국인)

* 상사의 반대

Jack'll blow his top. ↔ Our chairman might tend to disagree.

(잭은 불같이 노할 것이다) (우리 회장은 동의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 상대방의 말을 묵살할 때

You're talking bullshit. ↔ I'm not quite with you on that one.

(말도 안 되는 소리) (나는 그 점에서 당신과 생각이 조금 다르다)

76) Gannon, *Global Cultures*, p. 364.

77) Lewis, *Cultures Collide*, p. 171.

* 반대

You gotta be kidding. ↔ Hm, that's an interesting idea.
 (농담하지 마) (흠, 그거 재미있는 생각이네요)

* 만족

That's a beautiful scenario. ↔ We might find a way of making that work.
 (아주 훌륭한 계획입니다) (그 일이 이루어질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손해

You're going to get hurt. ↔ I'm not sure this is advantageous for you.
 (당신은 손해볼 것이다) (이것이 꼭 당신에게 이롭다고 장담할 수 없다)

* 선택

It's the only game in town. ↔ I have no other choice.
 (그것만이 최선의 선택이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다)

* 최선

Go for broke. ↔ Stake everything on one venture.
 (죽을힘을 다하다.) (한 가지 일에 모든 것을 건다.)

* 성공

He'll do his best to make it fly. ↔ He'll do all he can to ensure success.
 (그는 그 일을 뜨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다 할 것이다.)

* 꾸지람

When you scramble, you scramble like a son-of-a-bitch. ↔
 Speed of action is advisable.
 (너는 꾸물거릴 때는, 꼭 병신같이 꾸물거린다.) (빨리 움직이는 것이 좋다.)

유머는 영국인에게 있어서 대화의 중요한 요소이다. 영국인이 유머를 즐기는 것은 감정을 직접 표현하지 않으려는 영국인들의 태도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기본적으로 심각한 태도를 싫어하기 때문에 유머를 통해 무거운 분위기를 반전시키려는 노력을 자주 한다. 영국인들에게 있어서 유머는 다루기 힘들지도 모르는 당혹스럽거나 긴장된 상황을 모면케 한다.⁷⁸⁾ 유머를 통해 노골적인 풍자를 즐기고 방송에서도 거친 농담과 과장된 행동으로 가

78) Gannon, *Global Cultures*, p. 363.

득한 희극을 즐긴다. 의회에서조차 신랄한 유머가 표현되어 협상의 지루함을 덜어 준다. 영국인들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유머를 자주 사용한다.⁷⁹⁾

- * 자기를 낮출 때
- * 분위기가 비타협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 * 지나치게 격식으로 대화가 지지부진할 때 대화의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 * 해고당하지 않고서 상사를 비판하려고 할 때
- * 상상력이 없는 동료에게 새롭고, 다듬어지지 않은 아이디어를 소개할 때
- * 어려운 협상에서 예기치 않은 제안을 할 때
- * 어떤 일에 지나치게 신중한 모습을 대할 때
- * 혹은 직장에서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
- * 미래에 대한 계획을 너무 심각하게 말하는 것을 비웃을 때

2. 직장에서의 의사 표현

영국 기업가들의 태도와 경영 방식은 아직도 전통사회의 계급의식과 제국주의 시대의 가치관을 반영하는 측면들이 있다. 영국에는 계급제도가 아직 존속하고 있고 사회적 지위와 활동도 어느 정도는 혈통, 지위, 가문의 후광을 입기 때문에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기업 경영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외국인이 볼 때 영국의 경영자들은 외교적이고, 재치가 있고, 느긋하고, 격식을 차리지 않고, 합리적, 타협적 태도를 가지며, 공정한 태도를 유지하려고 애쓰는 사람들로 받아들여진다. 영국의 경영자들도 스스로를 창의력이 풍부하고 가끔은 고정관념에 얽매이지 않고 균형이 있는 사고를 하는 사람들로 여기고, 아량, 품격, 유머, 위트, 설득력, 침착성을 가지고 기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⁸⁰⁾ 미국인 경영자들은 사업상 새로운 일이 생겨났을 때 기발하고 멋진 말로 표현하는 재주가 있는 반면, 영국인들은 새로운 표현을 피하고 막연한 전통적 표현 방식을 더 선호한다.

영국의 경영 방식에는 캐나다, 호주, 독일,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는 거의 없는

79) Lewis, *Cultures Collide*, p. 176.

80) *Ibid.*, p. 76.

걸치레가 존재한다. 경영자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고 부하 직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하급자에게 지시를 할 때에도 정중하게 부탁하는 방식을 택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경영자는 마음을 잘 드러내지 않는 태도와 더불어 이러한 정중한 태도를 통해 하급자와 일정한 거리를 두려고 한다. 일반적으로 영국에서 회의는 근무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경영자들은 회의를 지시를 내리는 기회라기보다는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으로 인식한다. 업무에 관한 결정이나 지시도 회의에서 함께 논의하고 확인함으로써 내려진다. 이러한 회의는 일반적으로 격식을 차리지 않는 대화로 진행되며 참석자들은 질문을 해서라도 자기 몫을 한다. 각자 생각이나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하도록 권장되지만 의견의 비중은 신분이나 나이에 따라 달리 받아들여진다.

영국에서 언어는 경영의 수단으로 쓰일 때는 훨씬 더 섬세하게 표현된다.⁸¹⁾ 경영자들은 부하들을 다스릴 때는 격식을 따지지 않고 다정하고 조용한 음성으로 차분하게 대한다. 대신 직원을 칭찬하거나, 꾸짖거나, 암시하거나, 비판할 때는 다양한 유머를 사용하여 의사를 표시한다. 미국이나 독일의 경영자들의 경우 부하들을 꾸중할 때 통명스럽고 직선적으로 쏘아 부치지만, 영국의 경영자의 경우는 다른 말을 할 때 거기에 덧붙이는 식으로 하거나 유머를 통해 완곡하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부하를 책망할 때 오히려 크게 배려하는 듯한 말을 하거나 심지어 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⁸²⁾ 반대로 칭찬을 할 경우에는 꾸중을 하는 것처럼 하는 경우도 있다.

영국인 경영자들은 근무시간을 엄격하게 통제하지는 않지만,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다. 영국에는 정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근무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유롭게 근무를 하지만, 그날그날 주어진 과제를 완전하게 마무리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 그 때문에 경영자나 직원들이나 모두 보통 5시나 6시에 회사를 퇴근하지만 일거리를 자주 집에 가져간다. 업무를 처리하다 실수를 해도 책망을 받지 않고, 일을 서둘러서 처리해야 한다는 압박감도 거의 느끼지 않는다. 부서별로 팀워크가 강조되지만 경영진이 평사원과 직접 접촉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 특히 경영자가 신임하거나 재능이 있고 진취적이라고 알

81) *Ibid.*, p. 109.

82) *Ibid.*, p. 110.

려진 사원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다. 경영자들은 부하가 어떤 성과를 내는 가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결과보다는 일을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다하는 태도를 더 높이 평가한다.

직장에서 하는 사회적 접촉과 직업 혹은 기술을 통해 많은 영국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발견한다.⁸³⁾ 영국인은 개인주의적인 성향이 강하면서도, 자기가 소속된 집단의 보호와 안정된 위계질서 속에 일하는 것을 선호한다. 영국인들은 상사의 권위를 존중하기 때문에윗사람의 지시를 받는 것에 익숙하며 상사가 누구든 상관없이 그가 내리는 지시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다. 영국인들은 자신이 속해있는 집단과 직장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도 그것을 잘 표현하려고 하지 않는다. 집단의 구성원들은 가능하면 서로간의 불화를 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외하고는 직장에서 일어나는 갈등은 거의 원만히 수습된다. 직장인 대부분은 출세를 위해서는 높은 학력, 능력, 야망, 노력, 교제가 필요하다고 여긴다. 그러나 출세를 위해 노력하면서도 무리한 욕심은 자제하고 위의 상사가 승진하거나, 이동하거나, 사망하여 승진될 기회가 주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다.

3. 거래 방식

영국인들과의 사교모임은 물론 비즈니스에서도 정한 시간을 지키거나 몇 분 늦게 도착하는 것은 괜찮지만 일찍 가는 것은 금물이다. 영국인은 보통 10~20분 늦는 것을 그다지 문제시하지 않는다. 사업상의 만남에서 영국인들은 처음에는 다소 격식을 차리는 편이지만 두세 번 만나면 격의없이 어울리려고 한다. 그들은 이름을 부르고 상의를 벗거나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리는 등 매우 자연스러운 태도를 보인다. 영국인들은 자신들이 가정적인 사람으로 보이기를 좋아하며, 회의 도중에 자연스럽게 어린아이, 휴가, 옛 추억을 이야기한다.

영국인들은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국가의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편안함을 느낀다. 그들은 또한 북유럽이나 네덜란드 사람, 그리고 일본인과 상대할 때 자연

83) O'Driscoll, *Britain*, p. 52.

스러움을 느낀다. 그리고 영국인들은 지나친 격식이나 친근감 따위는 좋아하지 않는다. 자신들은 지나친 격식을 갖추는 국민들(프랑스, 독일)과 너무 성급하게 친근감을 드러내는 국민(미국, 호주의 습성) 사이에 중용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한다.⁸⁴⁾ 영국인들은 속해 있는 계급과 지역에 따라 상대방의 태도에 다르게 반응한다. 부유하고 계급을 의식하는 남부 잉글랜드 사람들은 개인의 교양과 교육적인 측면을 중시하는 반면, 보다 완고한 북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사람들은 상대방의 진실성과 솔직한 태도에 더 비중을 둔다.

유머는 앞에서 본 것처럼 영국인들의 일상과 직장생활에서 필수적인 것일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이 영국인들과 협상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영국인들과는 풍부한 화제나 유머를 주고받으면서 업무외적인 대화를 잘 풀어나갈 때 상담이 잘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또 영국 경영자들은 유머를 가장 효과적인 능력의 하나로 간주하기 때문에 유머감각에서 그들과 대등하게 맞설 수 있는 사람을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영국인과 거래를 할 때 조크나 일화들을 많이 준비해야 한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상대방을 비웃거나 상대방의 의견에 반대하거나 심지어 경멸할 때도 유머를 하나의 무기로 사용한다. 특히 일부 라틴계 사람들처럼 지나치게 자신을 과시하는 상대방에게는 가차없이 부정적인 유머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그들은 겸손함과 절제된 태도를 보이는 북유럽 사람들에게는 좀처럼 비꼬는 유머를 쓰지 않는다.

영국인들의 말을 삼가서 하는 태도나 유머의 용도를 잘 이해하는 외국인들이라도 거래나 상담을 할 때 그들의 막연한 태도에서 짜증을 느낄 때가 많다. 외국인들은 영국인들의 말을 알아듣는데 어려움을 느끼는데, 그것은 그들의 말들이 불분명하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막연한 태도로 시간을 벌거나,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거나, 일을 질질 끈다. 영국인은 좋은 매너, 유머, 타협적 합리적 자세로 협상에 임하지만 오랜 기간을 겪어본 사람들은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들 기업인들과 거래해 본 사람들은 영국인들이 적극적으로 토론하려고 하고 타협하려는 자세를 가지는 점을 평가하면서도, 그들의 태도가 위선적인 경우가 있다고 느낀다. 영국의 기업주들은 직원들에게 다소 불분명하게 의사를 표현하는 방식을 습득해서 거래 상대방을 대하는 행동 요령

84) Lewis, *Cultures Collide*, p. 175.

을 익힐 것을 주문한다. 영국인들과 거래를 해본 사람들은 그들이 이처럼 일종의 술책을 부리는 데 실질적이고 물질적인 욕구가 크게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영국인들은 상대방의 제안을 드러내놓고 반대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들은 동의를 할 때도 제한을 많이 둔다. 그러나 반대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할 때는 여러 가지 감춰진 표현을 이용한다.

* '글쎄요, 우리는 그것을 아주 좋아합니다만....'

Well, we quite like that, however...'

* 막연한 대답

* 반대를 할 때도 조심해서 말하는 태도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That might be a bit tricky.)

* 유머

영국인들은 상대방과 의견의 불일치가 없는 경우에조차도 처음의 합의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드물다. 그들은 상대방이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재촉하지 않는다. 그들은 항상 가능하면 느긋하게 뒷걸음치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가까운 상대가 아닐 경우에는 쉽게 믿지 못하고 상대방을 파악하기 위해서 뜬말을 듣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태도는 외국인들이 그들을 속이려 한다는 불신감을 부분적으로 내포하기도 한다.⁸⁵⁾ 미국인들은 가능한 한 본능적으로 단숨에 결정을 내리기를 좋아하는 반면, 영국인은 논리적이기보다는 본능적이지만 결정할 때는 보다 신중을 기한다.

영국인들은 일반적으로 단기간의 거래보다 장기간의 관계에 관심이 많다. 다른 나라들에서는 많은 업무가 전화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영국인들은 거래 조건을 길게 토론하고, 거의 항상 토론 후에 바로 상대방에게 그 내용을 문서화하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영국인들은 각 거래마다 조건과 거래 과정을 기록한 두툼한 파일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경영자들은 이러한 전통적 방식을 고수함으로써 신속하고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태도에 대응해서 외국인들은 겸손한 자세와 좋은 매너를 보이면서 끈기를 가지고

85) *Ibid.*, p. 178.

기다리는 요령을 터득하는 경우가 많다.

영국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그들 회사의 명성, 규모, 재력을 협상하는데 보통 이용한다. 상대방도 그런 정상적인 조건들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영국인들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그들이 쉽게 노출시키지 않는 이면의 영향력이다. 학연 혹은 옛 친구 관계는 영국의 경영자들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하나의 현실적인 능력이므로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비합리적 요소는 재계, 행정부, 법조계에서 특히 영향력을 발휘한다.

V. 맺음말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에 이르러 형성된 잉글랜드의 정체성은 대부분 문화적 정의를 내용으로 하는 것들이었다. 이 시기의 민족 정체성은 시인, 소설가, 문학평론가, 언어학자, 민속학자, 그리고 역사가들의 문제였다. 훗날에 내려진 ‘영국적 특성(the English character)’ 혹은 ‘영국적 전통(the English tradition)’의 많은 설명들이 이 정체성에 지나치게 의존했다. 그러나 정치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정체성은 별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 20세기 전반(前半)의 다른 변화들, 특히 새로운 노동운동과 노동당의 대두가 잉글랜드의 정체성을 약화시켰다. 노동운동은 잉글랜드만이 아니라 영국 전체의 문제였다. 이 운동은 웨일스와 스코틀랜드를 중심으로 세력이 확대되어 나갔고, 또 과거 어느 정파나 운동보다 인종적 민족적 노선을 초월해서 광범위하게 전개되어 나갔다. 노동운동으로 잉글랜드뿐만 아니라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민족주의도 약화되었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제국의 종말과 더불어 영국은 분열되기 시작하였다. 잉글랜드는 다시 스코틀랜드, 웨일스, 아일랜드의 민족주의 운동에 직면하면서 잉글랜드는 다시 통합적 정체성의 보호막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대영제국의 정체성이 퇴조하면서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새롭게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제 잉글랜드의 정체성은 문화에서 정치로 이동하였다.⁸⁶⁾

86) Kumar, "English National Identity," p. 52.

1970-80년대 ‘신 우파(New Right)’의 보수적 정치인들이 다수 등장하고 우파 학자와 출판업자들이 이에 가세하면서 이들은 잉글랜드 중심의 정체성을 본격적으로 추구하였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노동당 정권이 지방 자치(Devolution)를 강조하고 스코트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자치의회를 갖게 되면서 잉글랜드의 정체성이 영국의 정체성으로 더욱 확고하게 자리잡게 되었다.

서두에서 말한 바와 같이 잉글랜드의 정체성은 영국인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영국이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이러한 정체성을 낫설어하는 많은 영국인들이 생겨났다. 20세기 후반에 영국 사회는 노동계급 문화의 대두, 여성의 사회진출과 지위향상에 따른 가족관계와 가정의 변화, 청소년문화의 발전, 도시의 하위문화들(sub-cultures)이 생겨나면서 기존의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급속도로 달라져 가고 있다. 이제는 기존의 영국적 정체성이라는 패러다임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늘고 있다. 영국인들 모두가 자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니다. 도시의 대중문화를 선호하여 잉글랜드의 자연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 있다. 특히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치에 깊은 불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전원적 정서에 반감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기존 사회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하위문화들은 도시의 빈민지역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영국의 하위 저항 문화에 대한 가장 큰 영향은 아프리카-카리브 계로부터 왔으며, 이들의 흑인음악이 가장 중요한 문화적 영향을 주었다.⁸⁷⁾ 이들의 음악과 문화는 런던의 노팅 힐 카니발(Notting Hill Carnival)에서 가장 화려하고 풍부하게 대중 앞에 펼쳐진다. 문학에서도 1970년대 이후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 이민의 후손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⁸⁸⁾ 영화도 1980년대 후반 이민들이 만든 영화들이 전성기(Black Film Renaissance)를 구가하였다. 1960, 70년대 전위적 대중음악의 눈부신 발달,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실험연극, 1980년대 체제비판 영화의 본격적인 등장에서 영국의 문화와 사회가 본격적으로 모더니티(modernity)를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87) 특히 스카(ska), 레게(reggae), 랩(rap)의 세 음악 형식은 카리브와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발전하였다.

88) 살만 루시디 Salman Rushdie, 벤 오크리 Ben Okri, 나딘 고디머 Nadin Gordimer, 나이 폴 V. S. Naipaul, 데렉 월코트 Derek Walcott, 하니프 쿠레이시 Hanif Kureishi 등.

이제 영국이 다문화 사회로 변해가고 있으며 기존의 정체성이 급속히 무너져 가고 있음을 알려준다. 그러나 다수 영국인이 자연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가졌던 것처럼 몇몇 하위문화는 잃어버린 세계에 대한 향수에서 출발한다.⁸⁹⁾ 이를테면, 스킨헤드들(Skinheads)은 상상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이상적인 노동계급의 문화, 레스터패리언들(Rastafarians)은 옛 아프리카에 대한 동경, 그리고 '뉴 에이지 방랑자들'은 옛 전원생활을 동경하고 있다. 이처럼 오늘날 영국은 현대의 모더니티를 추구하면서도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가 공존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영국적 정체성 혹은 정서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상업적인 목적이나, 보수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이데올로기로 이용하려는 부류들도 있다. '헤리티지' 정서를 상업화하려는 시도는 부분적으로 긍정적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정서는 거친 언어와 폭력이 일상화되어가고 물질문명이 인간의 소외를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고상한 품격과 점잖은 언어를 상기시켜주고 옛 유적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통해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다.⁹⁰⁾ 그러나 1996년까지 영국에 세워진 2,500 개의 박물관 가운데 절반이 1971년 이후에 세워진 것들이고, 1996년 한 해에만 1100만 명의 관광객이 이러한 장소를 찾았다는 것은 상업주의가 다소 지나치게 작용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더 부정적인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정치 이데올로기화해서 대중 동원에 이용하려는 것이다. 특히 대처의 보수당 정권 하에서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를 강조하는 이면에는 이러한 정치적 의도가 상당히 작용하고 있는 흔적이 발견된다.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영국의 전통과 정체성은 현대에 와서 과거와 많이 달라져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비단 영국만의 현실이 아니다. 오늘날 나라마다 다소 차이가 있지만 전통적인 가치나 제도가 급속히 바뀌어가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영국인들은 1960년 이후 이혼과 가정의 해체, 미혼모와 청소년문제,

89) 1950년대 에드워드 7세 시대의 화려한 복장을 입었던 Teds, 1960년대 폭주족 Rockers와 보헤미안적 옷차림을 추구하던 Mods, 1970년대 폭주족 Bikers 혹은 Greasers, 보수파 청년들인 스킨헤드족 Skinheads, 거칠고 반항적인 옷차림과 음악을 추구했던 펑크족 Punks, 독특한 머리모양과 옷차림을 하고 아프리카 복귀를 주창하는 아프리카계-카리브 출신의 레스터패리언들 Rastafarians, 1970년대 펑크와 1960년대 히피의 혼합물인 1980년대 고트족 Goths, New Age Travellers 등이 대표적이다.

90) 이러한 입장은 본인의 줄고, 「대처리즘과 영국영화의 르네상스: 헤리티지 영화」에서 개진된 바 있다.

범죄율, 실업과 하위계급 증가 등 여러 측면에서 다른 나라들과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매우 심각한 변화를 겪고 있다. 앞에서 논의했던 영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덕목들이 급속하게 실종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국인들의 가치관과 태도 가운데 본받고 지켜가야 할 것들이 많다. 개인의 자유와 개성을 존중하고, 옛 것을 소중히 여기고, 사회를 위해 봉사하고, 페어 플레이 정신을 발휘하고, 점잖은 매너와 친절함 언어로 타인을 대하고, 타인에게 관대하고 아랫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며, 자연과 동물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마음씨는 영국인들이 인류에게 주는 소중한 선물이다.

인 용 문 헌

박우룡, 「대처리즘과 영국 영화의 르네상스: '헤리티지' 영화」 『대구사학』 72
집 2003년 8월호 439~470

- Alter, P., *Nationalism*, 2nd edn. London: Edward Arnold, 1994.
- British Council, *Looking into England*. London: British Council, 2000.
- British Council, *Reinventing Britain*. London: British Council, 1997.
- Brubaker, P., *Citizenship and Nationhood in France and German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Burrow, J. W., *A Liberal Descent: Victorian Historians and the English Pas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1.
- Butterfield, H., *The Englishness and his Histor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44.
- Christopher, D., *British Culture*. London: Routledge, 1997.
- Colley, L., *Britons: Forging the Nation, 1707~1837*.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92.
- Collini, S., *English Pasts: Essays in History and Culture*.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 Collini, S., *Public Moralists: Political Thought and Intellectual Life in Britain 1850-1930*. Oxford: Clarendon Press, 1991.
- Colls, R. and Dodd, P. (eds.), *Englishness: Politics and Culture 1880-1920*. London: Croom Helm, 1986.
- David, A. and Sinfield, A. (eds.), *British Culture in the Postwar Period*. London: Routledge, 2000.
- Davis, N., *The Isles: A History*. London: Macmillan, 1999.
- Doyle, B., *English and Englishness*. London: Routledge, 1989.
- Greenfeld, L., *Nationalism: Five Roads to Modernity*. Cambridge,

-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2.
- Hechter, H., *Internal Colonialism: The Celtic Fringe in British National Development, 1536~1966*. London: Routledge, 1975.
- Hofstede, G., *Cultures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New York: McGraw-Hill, 1991.
- Kightly, C., *The customs and ceremonies of Britain*. London: Thames & Hudson, 1986.
- Lewis, R., *When Cultures Collide: Managing successfully across cultures*. London: Nicholas Brealey Publishing, 1998.
- Lucas, J., *England and Englishness: Ideas of Nationhood in English Poetry, 1688-1900*. London: Hogarth Press, 1991.
- McDowall, D., *Britain in Close-Up: An In-Depth Study of Contemporary Britain*. Longman, 2001.
- Morley, D. and Robins, K. (eds.), *British Cultural Studies: Geography, Nationality, And Ident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Nairn, T., *The Break-up of Britain*. London: Verso, 1977.
- Newman, G., *The Rise of English Nationalism: A Cultural History 1740-1830*. London: Weidenfeld & Nicolson, 1987.
- O'Driscoll, J., *Britain: The Country and Its Peopl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1.
- Part, M., *Think of England*. London: Phaidon, 2000.
- Paxman, J., *The English : Portrait of a People*. London : Michael Joseph, 1999.
- Royle, E., *Modern Britain, A Social History 1750-1985*. London: Edward Arnold, 1989.
- Thompson, E. P., *The Making of the English Working Class*. London: Vintage Books, 1966.

- Thompson, F. M. L (ed.), *The Cambridge Social History of Britain 1750-1950*.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Tidrick, K., *Empire and the English Character*. London: Tauris, 1990.
- Warde, A. "Food and Class," N. Abercrombe and A. Warde (eds.), *The Contemporary British Society : Reader*. Cambridge: Polity Press, 2001. 210~220.
- Watts, M. R., *The Dissents*, vol.1 Oxford University Press, 1978.

Abstract

English Identity and Ways of Its Expression

Park Wooryong

Because English culture dominates the cultures of the other three nations of British Isles, every habits, attitudes and values among the peoples are very similar. However, they are not identical, and what is often regarded as typically British may in fact be only typically English. Non-English members of the United Kingdom are very sensitive to the lordly English habit of subsuming British under English. The most English people have the difficulty in distinguishing themselves, in a collective sense, from the other inhabitants of the British Isles. They are of course perfectly well aware that there are Welsh, Scots, Irish. But the general rule is to see all the major events and achievements of national life as English. Other ethnic groups are brought on in minor or supporting roles.

England before the late nineteenth century could not know nationalism as a nation state formed by the nation. The English nation, the political nation was a class concept, and remained so for at least a century after the French Revolution. There were moments of patriotic fervor at the time of the Spanish Armada, and several other occasions during Elizabeth's reign. There were claims for equality during the English Civil War, though in any case couched mostly in religious terms. There was a popular mobilization against the French during the Revolutionary and Napoleonic wars. But none of these amounts to an instance of nationalism proper, and certainly generated nothing like a persisting national consciousness.

For much of the eighteenth and the first half of the nineteenth century, the inhabitants of the newly formed Great Britain saw themselves primarily as Britons and their country as Britain. This then was a national identity of a kind. But it was not a 'nationalist' identity, an identity framed in terms of common membership of an ethnic community. Its attachment was primarily institutional—to Church, to Parliament, and, above all, to the Crown.

English national consciousness developed at some point towards the end of the nineteenth century. Probably the most important reason for the rise of Englishness was ideological. The nineteenth century was the age of nationalism, and the latter part of the century saw the new doctrine developed to its most intensive point. Nationalism at this time had come to be predominantly of the cultural kind. As opposed to the older kind, emphasizing common citizenship, cultural nationalism emphasized common ethnicity. The hallmarks of this ethnicity were held to be language, religion, history, and blood or race.

English intellectuals responded energetically to this need. In language and literary studies, in historiography, fiction, and folklore, there arose what can best be described as a cultural movement to define and celebrate Englishness. The moment of Englishness defines, in many ways, the essence of Englishness as this has come to be conceived in the high culture of the nation. Many of the later accounts of 'the English character' or 'the English tradition' drew heavily on it.

But the Englishness of the late nineteenth and the early twentieth centuries was mostly a cultural definition. It was an affair of poets, novelists, literary critics, philologists, folklorists, and historians. At the level of national politics it was played down. English national identity largely consists of individualism, conservatism, class consciousness, public spiritedness and amateurism, and the love of nature.

Contemporary English culture tends to reflect these five crucial factors of English identity and, especially, linguistic expressions of English people also largely approve influence of the identity.

Key Words : Englishness, Britishness, Culture, Language, Humour

주제어 : 잉글랜드의 정체성, 영국적 정체성, 문화, 언어, 유머